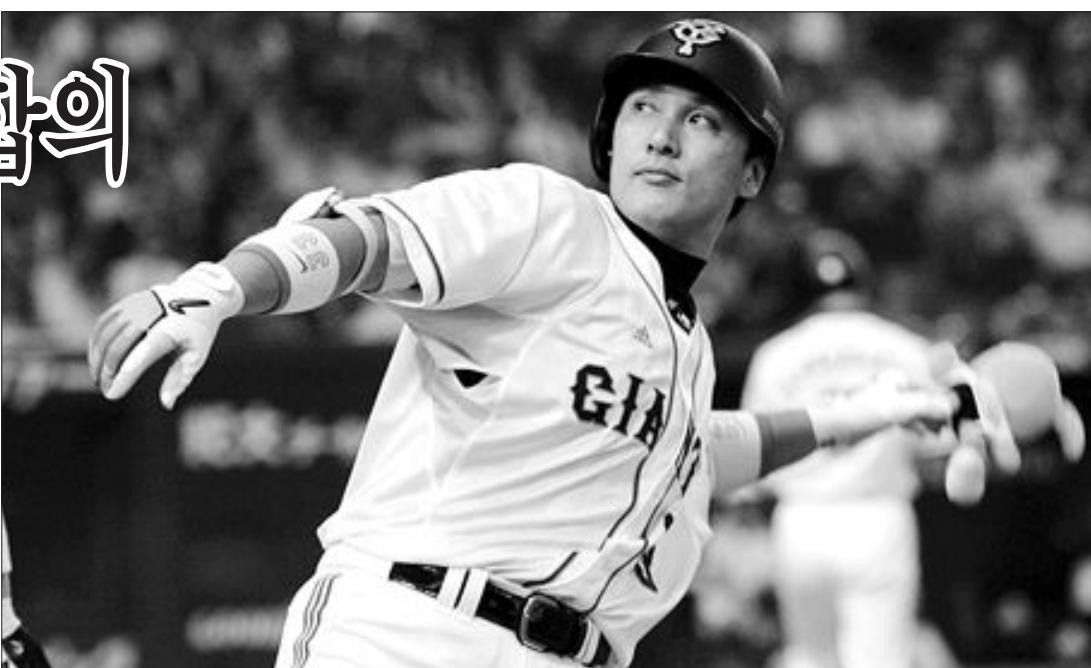


이승엽 '4년 장기 계약' 합의



"나에게 메이저리그는 소중한 일이지만 요미우리에 서 우승하고 나서 생각하고 싶다"

일본프로야구 '거인 군단'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4년 계약에 합의한 이승엽(30)은 5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거 꿈을 잠시 접고 장기 계약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이승엽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오데마치의 구단 사무실에서 기요타케 히데토시 구단 대표와 계약서에 사인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요미우리에서 모두와 싸우겠다는 마음이 강했다. 우승할 때까지는 다른 곳에 가지 않겠다"며 팀 우승을 미국 무대 진출의 전제 조건으로 꼽았다.

그는 앞서 하라 다쓰노리 감독의 잔류 요청을 받았을 때도 '요미우리는 끌어버린 내 이름을 되돌려렸다. 하라 감독은 나를 믿어줬다. 요미우리를 우승시키고 하라 감독을 향가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었다.

그는 이어 요미우리가 소속팀에서 10년 간 뛰어온 2002년 시즌 후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와 3년 2

요미우리 우승후 메이저리그 진출 조건

마쓰이급 대우... 내년 몸값 40억원 전망

천100만달러에 계약했던 '고질라' 마쓰이 히데키 수준의 대우를 해준 것에 대해 "1년 밖에 안 뛰었는데 이런 좋은 대우를 받게 돼 기분 좋다"고 말했다.

마쓰이는 미국 진출 당시 연봉이 5억엔(40억원)이었기 때문에 이승엽의 내년 몸값은 5억~6억엔(48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또 지난 달 13일 수술을 받았던 왼쪽 무릎 상태에 관련, "좋아지고 있다. 재검사에서 OK가 나오면 재활 훈련을 하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9일 개막하는 제2회 코나미컵 아시아시리즈 때 올해 한국시리즈를 제패한 친정팀 삼성 라이온즈와 일본 재팬시리즈 힐피언 니혼햄 파이터스와 경기의

TV 해설자로 깜짝 데뷔하는 이승엽은 오는 13일 병원의 최종 진단을 받고 빠르면 이달 중순 귀국해 재활 훈련을 시작한다.

이승엽은 올 시즌 막판 타이론 우즈(주니치)에게 추월당해 센트럴리그 홈런왕을 내줬지만 41개의 홈런 등 타율 0.323, 108타점, 101득점의 좋은 성적으로 요

미우리 4번 타자 끝을 100% 수행했다.

지난 시즌 후 연봉 1억6천만엔, 계약금 5천만엔 등 총 2억1천만엔(17억원)에 1년 계약했던 이승엽은 '우승 후 다음 해 거취를 논의한다'는 단서를 달아 요미우리와 오는 2010년까지 4년 장기 계약을 했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삼성, 日·대만 좌투수 넘어라

9일부터 도쿄돔서 코나미컵... 한·일·대만·중 참여

아시아 최정상 야구팀을 가리는 제2회 코나미컵 아시아시리즈가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야구의 삼장 도쿄돔에서 벌어진다.

한국 대표 삼성라이온즈는 7일 출국, 9일 일본 대표 니혼햄 파이터스전을 시작으로 중국 을스타(10일), 라류 베어스(대만·11일)와 한 차례씩 맞붙는다.

지난해 지바 롯데 마린스에 이어 준우승을 거둔 삼성은 유일하게 이 대회에 2년 연속 출전하는 클럽팀이라는 자존심을 내세워 올해는 아시아 정상을 밟겠다는 각오다.

일본의 스포츠전문 웹사이트인 '스포츠나비'는 최근 아시아시리즈 개막을 앞두고 한국, 일본, 대만의 전력을 분석한 글을 올렸다. 각국 야구에 정통한 일본 칼럼니스트가 작성한 글로 각 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과 대만은 삼성을 맞아 좌투수를 내보낼 것으로 예측됐다. 니혼햄은 12승을 거둔 신인 좌완 야기 도모야를, 라류도 17승을 올린 에이스 우스요우가 출격을 준비 중이다.

정규 시즌에서 5전 전패를 당한 '괴물' 류현진(한화)은 상대로 설욕에 성공했던 삼성이 좌투수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 번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삼성의 필승 공식은 확실하다. 선발 투수가 5~6회만 막으면 권오준(32홀드, 평균자책점 1.69)-오승환(47세이브, 평균자책점 1.59) 'KO 펀치'가 경기를 마무리한다.

타격에선 주포 김정수와 김한수가 부진했지만 '기록의 사나이' 양준혁을 필두로 주장 이자 안방마님인 진갑용, 올해 한국시리즈 MVP 박진만 등 경험이 풍부한 선수가 많다.

또 아시아시리즈에서 핵심 선수로 지난해 정교한 스윙으로 일본 평론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박한이가 있다. 박한이가 날카로운 타구와 과감한 주루 플레이를 펼치면 득점 루트가 다양해진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인식 감독, 한화와 14억에 재계약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김인식(59) 감독과 계약금 3억5천만원, 연봉 3억5천만원에 3년간 총액 14억원에 재계약했다.

한화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킨 데 이어 올해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좋은 성적으로 팀의 도약을 이끈 김 감독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이같이 계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04년 말 한화와 계약금 1억8천만원, 연봉 2억원 등 2년간 총액 5억8천만원에 한화의 사령탑을 맡은 김 감독은 불과 2년 새 10억원 가까운 몸값 상승을 기록하며 '국민 감독'으로 최고 대우를 받았다.

연봉은 3년간 15억5천만원으로 역대 최고



를 기록한 김재박 LG 감독과 같다. 계약금 만 김재박 감독이 5억 원으로 약간 높다.

지난 1986년 해태(KIA의 전신) 투수 및 수석코치로 프로에 발을 들인 김 감독은 1990년 쌍방울 레이더스의 초대 사령탑을 역임했고, 1995년 OB (두산의 전신) 감독을 맡아 그해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어내며 지도력을 인정 받았다.

2001년에도 삼성을 꺾고 두 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거머쥔 김 감독은 '믿음의 야구'로 국민 감독의 반열에 올랐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6일(월)

▲06/07 NFL(피츠버그-덴버)(06:05·SBS스포츠)

▲전국 대학농구 연맹전 2차대회(12:00·SBS스포츠)

▲AFC 청소년 축구 선수권 8강(19:30·Xports, SBS스포츠), (22:30·Xports, SBS스포츠)



이형택이 5일 오후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7회 삼성증권배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비준 파우(77위·독일)와의 결승전에서 포핸드 공격을 하고 있다.



5일 서울서 열린 종합서울마라톤에서 2시간10분49초를 기록, 대회 5위로 끝인 하는 이봉주 선수.

이봉주 올 한국최고기록

중앙서울마라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36·삼성전자)가 2006 종합서울마라톤에서 2시간10분49초로 올 시즌 국내선수 최고기록을 작성했다.

케냐의 제이슨 익보데(29)는 2시간8분13초의 대회 기록으로 우승했다.

이봉주는 5일 오전 서울 잠실-성남 코스에서 열린 대회 남자부 풀코스(42.195km)에서 2시간10분49초에 결승선을 끊어 5위로 끝인했다. 자신의 생애 36번째 풀코스 도전 이자 34번째 완주. 이봉주의 이날 기록은 지난 2월 일본 도쿄국제마라톤에서 김이웅(국민체육진흥공단)이 찍은 2시간11분28초보다 39초 빠른 올해 국내선수 마라톤 최고기록이다. 여자부에서는 김혜경(태안군청)이 2시간40분36초로 우승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형택 단식 4연패

삼성증권테니스

한국 남자 테니스의 기동 이형택(세계랭킹 56위·삼성증권)이 총상금 10만 달러가 걸린 제7회 삼성증권배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에서 단식 4연패 및 통산 6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형택은 5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열어진 결승전에서 독일의 비준 파우(77위)를 2-0(6-2 6-2)으로 완파하고 2003년 이후 이 대회 4년 연속 우승을 일궜다.

2000년부터 '이형택을 위해' 만들어진 이 대회에서 이형택은 2002년을 제외하고 전 대회에서 모두 정상에 올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금자탑을 쌓았다. 부산오픈, 렉싱턴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챌린저대회 우승.

상위 단계인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에서는 올해 일본오픈과 차이나오픈에서 서두 차례 단식 4강에 진출했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상설할인마트 확장이전

가을·겨울 상품 다양입하

MAKSTROO

OAKS

TONIGHT

TNGT

상설할인마트 서방점

150-511-0249

이용기능장 1호

가발

시술 12년 정립된 고급화
이수재원장 직영시술관

이수재원장

이수재원장

이수재원장

상상과 희망의 만남을 드립니다.

대마신념과 브랜드 가발 맞춤